

내 집과 같은 노인시설주거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III)

- 중년층의 선호하는 주택과 노후 주택의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

Homelik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Housing Facility(III)

- Based on the preferred housing characteristics of the middle aged -

건국대학교 생활과학과
교수 신영숙

Dept.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s, Kon-kuk Univ.

Prof. : Young-Sook Shi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homelike design characteristics of elderly housing facility. To investigate what the preference of physical design characteristics are, interview was done by unstructured questionnaire to 30 middle aged and middle income group housewives living in Seoul. It was identified that preferred homelik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houses were composed of 4 themes, housing types, building appearances and garden, floor plan and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s of its location. Their desirable housing standard was amenity which is the highest level of home environment. In their later life, they wanted to live in vicinity of Seoul to enjoy cultural benefits of the city and active outdoor activities in sunny, natural suburban environment. They liked a spacious, clean and bright color with natural material furnishings. Each architectural design expression of 4 themes was suggested.

주제어(Key Words): 집과 같은(homelike), 노인 시설주거 디자인(elderly housing facility design), 선호하는 주택의 물리적특성(preferre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housing)

I.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을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명실상부 고령사회로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14%를 차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00). 많은 연구 결과 사람들이 노후에는 노인 시설주거에서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앞으로 노인을 위한 시설주거에 대한 요구는 더욱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설의 주요 계획 목표는 거주자들이 장소적인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집과 같은 특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신영숙, 2000, 2001; Regnier, 1995).

기존의 연구 결과 건물의 물리적 형태는 그 안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정서적, 신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Brennan, 1988; Lawton, 1982; Moos & Lemke, 1996). 즉 노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물 디자인은 노인들의 활동수준, 사회적 접촉, 건강,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준다(Moos & Lemke, 1996). 또한 노인들은 주거환경이 제도적 분위기보다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집과 같은 환경을 좋아한다. 집과 같은 환경은 제도적 환경보다 과거로부터 해온 생활의 연장과 개인의 자유도를 확실히 증가시켜주며 건축비, 유지비, 운영비가 더 저렴하고 따라서 전체 단지의 건축비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후 시설주거는 건물의 외양에서부터 내부 마감에 이르기까지 특성과 외양, 관례(慣例), 마음에 그리는 심상 등이 집과 같은 특성을 지닐 것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므로 거주 환경이 최상의 신체적, 심리적인 지원을 해 주고 다양한 선택의 기회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될 때 오랫동안 독립성을 유지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Harrigan, 1998; Boshetti, 1990). 이러한 요구사항에 더욱 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수용을 위한 제도적 시설로서의 인상을 탈피하고 좀 더 노인의 생활욕구를 파악한 후

노년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 디자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 시설주거에 내 집과 같은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리적 디자인 특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연구목적으로 우리나라 중년층들의 현재까지 경험한 주택의 물리적 형태에 대한 선호 사항과 노후 주택에 대한 선호 사항을 파악하여 어떻게 노인 시설주거의 물리적 형태에 집과 같은 특성을 나타낼 것인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노인들의 환경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Kahana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은 노인의 개인적인 욕구와 공간의 특성사이의 조화성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과 과거 환경간에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Tognoli, 1987). 또한 노인을 위한 집단 거주시설의 물리적, 건축적 형태가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강과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Brennan, 1988; Lawton, 1982; Moos & Lemke, 1996).

노인 시설주거에 집과 같은 물리적 디자인 특성들을 표현하기 위한 연구들 중 가정의 프라이버시, 연속성, 자아동질성 또는 개인화의 개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Rubinstein은 노인이 자신과 가정환경의 연결점으로 관계중심 차원(social-centered process), 개인중심 차원(person-centered process), 신체중심 차원(body-centered process)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고 하였다(Smith, 1994).

프라이버시는 관계중심의 차원으로서 집단 거주 시설에서 중요한 특성으로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Tognoli, 1987; Regnier et, al, 1995). Hogland(1985)는 집단 노인 시설주거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감, 취약성들의 감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노인 시설주거에서 개인의 방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크기가 작기 때문에, 또한 거주자들의 사회화를 위해 사회적 공간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일어나도록 계획되

고 있어서 로비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으나 로비, 라운지, 식당 등이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가 느껴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의 공공적인 특성상 그러한 조치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Howell(1976)에 의하면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다 드러나고, 방문객 등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으므로 로비나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신영숙(2000)의 연구에서도 미국의 노인들이 인터뷰시에는 시설주거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익명성이 있는 설문지 조사에서는 로비에 대한 만족도나 시설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그저 그런 정도의 만족도로 나타났고 공간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5점척에서 1점으로 아주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다.

Zavotka와 Tesford는 거주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시설 내 공동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지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는 대부분 자신의 방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Zavotka, 1997).

Zavotka(1997)¹⁾ 역시 노인 시설주거의 로비와 라운지, 식당에 대한 노인들의 지각정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들은 이 세 공간이 개인적인 공간으로 느껴지거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공간 또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느끼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개성이나 자아정체성에 대한 차원의 디자인 표현으로 Rubinstein의 개인중심 차원은 개인의 일생동안의 수집품, 가족의 가보, 사진 등의 개인물품들을 들고 있으며(Smith, 1994) 또한 Boschetti(1995)도 소장품이 개인 자아의 표현과 역사성을 지닌 자신의 연속성의 표현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노인들에게

가족의 사진,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시계 등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자아와 가족의 역사성을 표현하도록 해 준다.

로비, 복도 안의 라운지, 식당 등은 개인 공간의 연장으로서 사회화와 장소에 대한 애착을 통해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되나

Malkin은 이러한 장소들이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디자인되기보다 가족이나 방문객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기 위한 시도로 계획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Harrigan, 1998).

Howell(1976)은 노인 시설주거 내의 시설이용도가 낮은 것은 부적절한 디자인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만일 거주자들이 그 공간에서 개인적인 애착을 못 느끼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Boschetti(1995)에 따르면 이 개인적인 애착 또는 “장소애착”은 한 공간이 노인들에게 의미를 가질 때 일어난다고 한다. Rubinstein은 주택에서 의미를 갖는 물건이나 시설특성들은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자아를 통해 일생동안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실내에 대한 개인적 애착은 그 환경이 그가 종전에 거주하던 주거환경과 사용목적이나 시각적인 자극이 유사할 경우 일어난다고 하였다(Smith, 1994).

또한 Rubinstein은 연속성의 표현으로 신체중심 차원을 들고 이는 개인에게 익숙해져 있는 색채, 질감, 선, 형태, 의장(가구, 직물의 무늬, 색채 등) 디자인 환경에 거주하다가 거주 장소를 옮길 경우 이러한 환경과 유사한 새로운 거주환경에서 노인들은 즉시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또한 노인들에게 연속성을 제공하는 사물의 특성은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갖거나 색채, 기타 시각적인 자극 등의 익숙한 지각적 체험이 있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의장 스타일, 색채계획, 악세사리의 선택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공간의 실내 디자인은 노인들에게 시설에 대한 긍정적 적응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이전 주택과 현 거주지 사이에 변화의 정도가 크고, 로비의 개인화 정도가 낮으며 로비에서 지내는 시간이 적은 경우, 시설에서 거주 기간이 오래되는 경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에 인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Harrigan, 1998).

1) Zavotka 등의 연구에 의하면 로비는 49%의 거주자들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복도 내의 라운지는 16.6%만이 이용하고 있어서 이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 연구 방법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 중산층의 주부 30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주택의 외부와 내부의 물리적인 형태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리 계획된 설문지를 가지고 인터뷰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대상은 연구의 성격상 중년층이면서 중산층으로 선택하였다. 중년층은 현재 노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자신도 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신의 노후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나이이며, 중산층은 저소득 계층에 비해 주택에 대한 경험을 많이 했을 것으로 기대하여 주택의 물리적인 특성에 대한 선호가 분명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의 강남과 강북, 강서와 강동의 지역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조사자는 주거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은 두 명의 연구원으로 보다 심층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로 인터뷰와 동시에 녹음기로 녹취를 하였으며 응답 도중이라도 자신들의 말을 덧붙이거나 변경 또는 삭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주었고 인터뷰 도중이라도 응답에 거부반응이 일어나면 언제라도 응답자가 녹음기를 꺼도 좋다는 것을 알려 주어 마음 편히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질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조사자들이 질문 시 주의사항, 응답자가 응답을 잘 못할 경우 어떠한 말로 응답을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매 질문의 말미에 기록해 두었다.

주택의 어떠한 물리적 특성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 내용은 현 주택을 선택한 이유, 현 주택에서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하지 못하는 활동과 공간적 제약이 없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의 종류, 과거에 살았던 주택의 물리적 형태에 대한 선호사항 및 불편 사항, 이사 갈 경우 살고 싶은 주택의 형태 및 노후에 거주하고 싶은 주택의 물리적 특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이 주택의 물리적 특성의 어떠한 점들을 인식하고 있는지, 집이란 이러한 점을 갖추어야 한다고 중요하게 가치를 두는 면은 어떠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틀이 없이 자유 응답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응답내용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의 있는 그대로의 집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내 집과 같이 편안히 느껴지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려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에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주택 중 물리적 특성의 선호 사항을 알아보려는 것은 결국 이 연구의 목적인 노후 주택에서 그들이 집과 같이 느끼는 물리적 특성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파악하여 노후 주택의 이상형에 대한 보완자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선호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나 중년기까지의 선호사항으로 노년기의 선호 사항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터뷰 진행 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이었고, 각 질문의 응답이 끝난 후 더 추가할 말은 없는지 반복 질문하여 되도록 많은 정보를 얻도록 하였다.

인터뷰 자료의 정리는 전체 녹취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원 자료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응답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이나 인상 등을 간단히 메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은 내용분석을 사용하였다. 질문이 질적 질문이므로 연구자가 몇 번씩 읽고 각 질문마다 전반적이고 공통적인 주제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각 질문 사항에 대해 연구자의 편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기존 연구를 기초로 한 예비적인 카테고리틀 만들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응답항목을 프린트하여 연구자가 여러 번 읽고 관련 용어나 단어, 절들의 항목을 기록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주제들을 찾아내어 같은 항목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로 묶었으며 각 질문마다 어떠한 주제들이 드러나는지를 파악하였다. 하나의 주제에 몇 개의 항목들이 묶여 있는지에 따라 전체 항목수가 많을수록, 또한 같은 항목이라도 각기 다른 응답자들이 응답한 경우 그 빈도를 산출하여 언급 빈도가 많을수록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이 응답한 말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여 두었으므로 응답자들이 각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하였는지 그 항목과 빈도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있는 그대로의 의견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중요시하였다. 주제가 드러나면서 같은 항목의

로 몇 번이나 언급되었는지 빈도를 산출하여 그 질문에 대한 주제의 비중을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신뢰도 검사는 연구자를 포함한 동일 전공 전문가 3인이 모든 용어의 빈도를 조사한 최초의 원 자료에 대해 어떻게 주제를 분류하였는가에 대한 일치도로 계산되었으며 평균 0.75이었다. 각 질문에서 낮은 빈도를 보이면서 각 주제로 명확히 묶이지 않는 것은 가능한 항목과 합쳐서 빈도를 높이거나 무시되었다(전체의 5%).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응답자들의 사회 인구학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총 응답자 30명 중 40~45세는 17%, 46~50세는 23%, 51~60세까지가 50%, 61세 이상은 10%이었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62%, 고졸이상이 38%이었고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은 아직 미혼의 자녀들을 둔 안정기 가정이 7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가족수 3인이 12%, 4인이 30%, 5인 이상이 27%), 30%의 가구는 이미 자녀들이 떠나서 부부만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었다. 월 소득은 평균 375만원(300만원이 44%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500만원이상도 22%)으로 나타났다.²⁾ 평균적으로 볼 때 응답자들의 전체 윤곽은 중년층이면서 중산층에 속하는 샘플로서 연구 결과를 자료로서 활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2. 주택의 선호하는 물리적 특성

조사대상의 전반적인 집에 대한 선호를 광범위하게 파악하고자, 과거에 거주하였던 모든 집에서 좋다고 생각되었던 특성들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선택 이유 중 특히 물리적인 선호특성, 또한 선호사항의 변동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더 구체적인 선호 사항을 파악하고자 이사갈 경우 선택하고 싶은 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선호하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표 1) 모두 주택 유형, 주택 외관, 평면 계획, 주위 환경(주택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네 가지 주제로 분류 되었다.

1) 주택 유형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전원주택으로 오늘날의 자연에 대한 친화성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었다. 선호 유형의 숫자적 의미는 비슷하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볼 때 아파트가 생활상의 편리함으로 인해 실제 거주 유형으로 가장 선호되는 주택 형태로 나타났다.

2) 주택 외관

주택 외관의 구성요소는 외관의 전반적인 형태, 주택 재료, 지붕형태, 건물 외부환경 및 정원이었다. 세부사항을 보면 전체 외관은 그림같이 예쁘고, 단순한 외관, 안정되게 내려가는 시선, 획일적이지 않은 외관, 전체적인 균형 등을 들면서 자연스럽게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감있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고 있었다. 주택의 재료는 통나무집이나 황토집 등 자연재료를 사용한 자연친화적인 집으로 위에 언급한 단독주택 선호와 단독주택의 특성인 박공 지붕형태 선호 및 건물외관도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것과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건물 외부는 정원이나 마당이 있고 나무가 심겨 있고 연못이나 우물, 시냇물 등으로 물이 있을 것과, 잔디, 화초 등으로 지표를 덮은 형태를 선호하고 있고 텃밭과 산책로 운동기구 등을 원하여 자연성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있다.

3) 평면 계획

주택의 평면에 대한 인식은 주택의 규모, 방의 배

2) 통계청의 도시가구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평균 가계수지 분류는 월 75만원부터 608만원 까지 10개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조사는 그 중 중간 영역을 중산층으로 정의하였다.(www.nso.go.kr)

〈표 1〉 선호하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

번호	선호하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세부 주제	비 고
1	주택 유형	공동주택(18)	아파트(15)	원룸(2) 빌라
		단독주택(19)	전원주택(15) 한옥(4)	이층집(8), 단층
2	주택 외관	주택외관 전체	단순한 외관 그림같은 집(5) 안정되게 내려가는 시선 확일적이 아닌 집	울타리 없는 집 특이한 외양 새집 지붕과 균형 드나들기에 막힘이 없는 집
		지붕	박공지붕(2)	녹색지붕
		주택재료	통나무집(2) 황토집(2) 목재주택	
		건물외부	정원(22) 마당(17)	식재(소나무,유실수)(20) 잔디, 화초(8) 텃밭(6) 개울, 연못, 우물물(6) 장독대(2), 산책로 운동기구(2) 주차공간
3	평면 계획	주택 규모	넓은 공간(개방감)(26)	부엌(13) 침실,거실이 중요(2) 거실 위주의 생활 베란다, 식당
			적절한 규모(7)	방 3개 43평 정도
		방 배치	방의 독립성(11) 부엌과 거실의 분리(4) 공간배치 중요(4) 정원이 보이는 거실(2) 거실위주의 공간 구성 짧은 동선	설치 희망공간 : 드레스 룸(5) 운동실(3) 독립된 다용도실(2) 간이손님방, 기도실, 서재, 음악감상실, 취미실, 다락방, 간이부엌
		기능/시설설비	충분한 수납공간(7) 편리한 화장실(3) 시설 잘된 집 현관 신발장 전면 확장	2개의 화장실(2) 보안 강화
		의장	밝고 옅은 색(15), 고급스러운 의장(8) 천연재료(8):목재마감,황토 살내 식물(3) 개성표현 ; 사진,액자	안정된 색(7), 자연색(베이지, 아이보리색) 통유리, 이중창 직물 소파 단순한 실내
4	주위 환경	쾌적성	교통(20), 위치(3) 조망(12) 환경 : 자연환경 ; 공기, 채광 출거나 덥지 않은 집 동네환경(8) 편의시설(14), 문화시설	주택가 학군, 주차시설, 운동시설, 산/ 하늘

* 세부 주제에서 숫자 표시 안된 것은 빈도 (1) 입니다.

치, 기능/시설설비, 의장등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택의 규모에 대해 개방감을 선호하여 넓은 공간을 원하는 비율이 방 3개 정도의 적절한 규모를 선호하는 것보다 2배 정도 높아서 넓은 평수의 주택을 선호하고 있었다. 특히 넓은 부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정도였고 넓은 식당, 넓은 배란다, 탁 트인 공간, 정원이 보이는 거실 등을 원하는 것은 현재의 디자인 경향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방의 배치방법에서는 방의 독립성을 가장 주장하고 있으며 부엌과 거실의 분리를 원하는 수도 상당수 있고 거실에서의 생활을 중요시하여 거실 위주의 공간구성이나 정원이 보이는 거실을 원하는 층도 있다. 주택계획에서 공간의 배치가 중요하다는 것도 주목된다. 설치희망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레스 룸을 언급하고 있고, 운동실이나 독립된 다용도실, 손님방, 취미실 등 다양한 공간을 원하고 있어서 생활양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으며 향후 주거 계획에 참고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기능/시설 설비상의 문제로 충분한 수납공간을 원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주요요소를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며 충분한 개수의 편리한 화장실, 현관 신발장이 벽전체로 확대될 것과 주택의 보안문제등이 중요하게 드러났다.

의장요소도 최근의 자연화 경향에 힘입어 자연재료의 밝고 열은 색의 색채계획으로 환하고 건강한 집을 원하고 있으며 실내 의장도 식물의 도입,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료의 도입 등을 원하고 있어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4) 주위 환경

주위 환경에 대한 것은 쾌적성으로 대변될 수 있다. 사회적 환경으로서 교통의 편리함, 동네위치를 중요시 하고 있고 특히 조망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은 요즈음 동일한 단지의 공동주택에서 주택가격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망이 좋은 곳을 선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전원에서의 생활을 동경하는 것과 자연환경에 노출되기를 원하는 것, 또한 편의시설, 문화시설을 원하는 것 등 모두

쾌적성으로 대변된다. 삶의 질을 논할 때 가장 고차원적으로 선호되는 환경 특성이 쾌적성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삶의 질적 측면에서 쾌적성을 원하고 있으므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3. 노후 주택에서 선호하는 물리적 특성

노후 주택으로 선호하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일반적인 주택 선호특성과 동일하게 주택 유형과 주택 외관, 평면 계획, 주위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세부요소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2).

본 연구 결과와 함께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바람직한 노인 시설주거의 물리적 특성에 관하여 각 주제 별로 집과 같은 물리적 디자인 특성을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주택 유형

주택 유형에서는 여전히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이 되었을 경우 실버타운을 선호하는 율이 높는데 이는 선호하는 거주형태에서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 또는 노인들끼리만 거주를 원하는 것과 상호 연관 된다고 할 수 있다(신영숙 1998, 2000). 실버 타운을 말하면서 그 선호 유형으로 모든 사람들이 유료 노인 시설주거를 원하고 있어서 앞으로 노후 주거 유형으로 유료 노인 시설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주택 외관

노후 주택의 외관은 아담한 규모의 깨끗하고 빛이 잘 들어오는 집을 선호하고 있으며 조경이 잘된 정원이나 마당이 있는 외관으로, 산책을 할 수 있고 집 마당에서 여러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곳을 원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 해 볼 때 독특한 외관으로 거주자들에게 '나의 집'이라는 인상을 줄려면 색채가 밝고 따뜻한 색을 사용하고 자연목재 등의 재료를 사용하며 내부에서 햇빛을 잘 받아 들

〈표 2〉 노후 주택에서 선호하는 물리적 특성

번호	물리적 특성	구성요인	세부 사항	비고
1	주택 유형	공동주택	아파트(11) 실버타운(15) ; 유료노인시설주거(15) 은퇴농장(복수 응답)	아파트 저층 선호 내 집에서 거주(15) 공동관리 정원
		단독주택	전원주택(3) 원룸(3) 연립주택, 단독주택	
2	주택 외관	주택외관	아담한 규모(8) 깨끗하고 고풍스러운 집(3) 빛이 환하고 독특한 형태(2)	
		건물외부	정원(15), 마당(8) 녹지(18) 산책로(19)	정원: 화단, 나무, 피콜라, 연못 벤취, 텃밭, 분수, 바비큐 공간 녹지: 나무(유실수, 상록수)
3	평면 계획	주택 규모	넓은 면적(2)	넓은 거실(4), 방 3개(6)
		시설	운동공간 및 시설(5) 편리한 시설(3), 욕실(4) 취미생활 공간(3)	방 문턱 제거(2) 의료시설(25) 황토방(3)
4	주위 환경	위치	서울 외곽, 신도시(16) 서울(8) 고향(3) 소도시(3)	산책할 수 있는 곳(23) 이웃과 연결해 있는 곳(9) 조용한 곳(7) 교회에서 세운 곳
		환경	자연환경	햇볕(25), 녹지(26) 산(7), 자연경관 좋은 곳(15)
			동네환경	교통 편리(11) 편의시설(13), 병원(13) 공원(13) 문화생활 가능한 곳(12)

* 세부 주제에서 (숫자)표시 없는 것은 빈도 (1)입니다.

일 수 있는 구조가 집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시설의 수용인원도 너무 많으면 건물의 부피도 커지고 관리상 익명성이 높아져서 제도적인 시설임을 느낄 수 밖에 없으므로 25~40가구 정도가 거주자들 상호간에도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낼 수 있고 스태프들도 다 잘 알 수 있어서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규모의 축소화는 중요하다.

건물 외관 : 노인 시설주거의 외관에 집과 같은 요소를 도입하려면 우선 전체 건물의 크기가 작은 것이 좋고 경사지붕, 앞으로 돌출된 현관, 지붕창 등

스케일과 관련요소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Brunnett, 1997). 집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재료의 마감재, 처리방법 등이 집과 같이 정비되고 예워쌓이는 디자인이 바람직하겠다. 즉 노인 시설주거에서 물리적 디자인으로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병원이나 너싱홈의 평지붕, 거대한 부피의 건물 덩어리 또는 상업적인 재료 사용을 배제하고 건물의 부피를 집과 같은 작은 스케일로 줄이기, 실내에도 거대한 장식보다 주택과 같은 친밀한 스케일로 처리하기와 의장이나 악세사리도 거주자의 흥미와 취향

을 들어내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gnier, 1994). 이를 위해 포치, 현수(懸垂, overhang), 지붕창 등은 외부에서 보이는 건물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건물의 크기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의 큰 건물을 몇 개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지역 너싱홈들은 분산화의 개념으로 조직되었다. 분산화는 큰 단지에서 좀 더 친밀하고 조정 가능한 환경으로 만든다. 복도에 자연광을 들어거나 중정 디자인은 밀집된 형태를 띄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그 사이 복도에 많은 양의 자연광을 들일 수 있으므로 더 이상적이다.

전면 포치 역시 많은 노인들에게는 외부세계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친근한 형태일 뿐 만 아니라 외부활동을 지켜 볼 수 있는 효과적인 장소로 생각되고 있다. 덧붙여 포치의 스케일과 건물에 연결되어 있는 방법은 건물 전체의 부피를 길거리에서 볼 때 축소시켜 보이게 한다. 2층이나 3층의 수직적인 벽에 반하여 경사 지붕의 포치는 건물을 더 친밀하게 보이게 한다. 또한 건물의 연결 부위 등에 연결하여 설치한 외부 조정공간은 내부에서 바라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내부 공간과 외부정원, 포치, 패티오를 연결함으로써 건물형태의 다양성과 독특한 개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지붕: 조사 대상자들이 역시 집과 같은 특성으로 박공지붕을 선호함과 같이 지붕, 벽난로, 현관문은 집과 같은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3대 요소로서 그 중 첫째 요소는 지붕이다(Brummett, 1997). 지붕의 형태는 지붕 안으로 생활공간이 에워쌓이는 형태가 집이 피난처로서의 안정감을 준다. 따라서 경사지붕, 박공지붕이 집과 같은 친근감을 주며, 지붕창은 건물의 높이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지붕 밑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붕을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으므로 피난처의 개념이 강해진다. 실내에서도 각 방의 천장 높이가 단일 높이로 동일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함을 못 느낀다. 각 공간의 크기와 모이는 사람의 수에 따라 천장의 높이가 달라져야 한다. 거실이나 공동 공간의 천장은 높게 하고 알코브 등의 경우는 1.8-2.1m 정도가 바람직하다.

건물 외부, 정원: 본 연구 결과 정원이나 마당 공

간의 활용성을 중시하고 식재와 조경 등을 선호하여 외부공간의 활발한 활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원이 잘 활용되지 않는 경우는 내부와 외부 공간의 경계가 분명치 않을 때, 정원이 길거리와 너무 가까이 있을 때, 내부공간에서 외부공간으로 너무 갑자기 변할 때, 또는 정원의 형태가 건물이나 울타리 등으로 꼭 막혀 있을 때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려면 모호함이 있는 전환공간이 있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포치, 지붕이 있는 베란다 등 자연스럽게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도 있고 어느 정도 출입구와 가까우며 거리와 연결되어 있는 장소가 좋은 계획이 되겠다. 즉 담장으로 가려진 건물의 옆면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대문에서 현관으로 가는 길, 가로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좋다. 즉 자신의 등이 잘 보호되고 전면이 열려있는 공간, 자기위치를 찾을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자리를 제공하여 등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작고 둘러쌓인 공간으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에워쌓인 공간이면서 그 자리에서 좀 더 넓은 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앉을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Alexander, 1977). 정원의 나무들은 사람들의 친밀감을 자아내는 공간 창조에 중요하다. 오동나무는 우산과 같은 공간을 창조하고 양쪽으로 나무가 서로 맞닿아 있는 열주를 이루는 공간은 가로수 길을 만들어 주므로 나무의 특성에 따라 식재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정원 조경은 시각,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식물재료 공급으로 거주자들의 감각에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능동적 물리치료와 수동적 명상을 통한 진정효과와 산책할 장소, 움직일 수도 있고, 앉았을 수도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후정영역은 중정, 부분적 후정, 수목이나 담장으로 둘러쌓인 공간, 커다란 데크 등, 거주자가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과 담소, 피크닉, 정원 가꾸기 등의 목적이 있고 재미가 있으며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계획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실에서 직접 외부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사적외부 공간이 없으면 거주자들의 전체 활동 폭이 줄어들게 되므로 거주자 방과 직접적으로 연

결되는 외부 공간을 만들 것이 요구된다. 발코니, 포취, 테크와 기타 외부 장소로 소규모 사적인 패티오, 정원, 또는 공유되는 장소의 사적 모퉁이나 다층건물에서는 테크나 발코니 형태로 계획할 수 있다.

각 주거단위의 열 사이에 둘러 쌓이고 아늑한 안마당 공간을 만들어서 녹음이 우거진 조경정원으로 만들든가 행위를 위한 공간으로 안마당은 개인적으로 흥미있는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평면계획

노후 주택의 평면계획에서는 현재 조사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의 선호 사항(표 1)과 달리 주택 규모와 시설에 관한 언급만 있었는데 이는 현시점에서 노인이 되었을 경우의 선호사항에 대해서 현실감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택규모로는 넓은 면적을 선호하는 율이 낮으나 넓은 거실이나 3개의 방 등 여전히 넓은 주택을 선호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다 떠나가도 방이 3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설 역시 노후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운동 공간, 편리한 욕실과 주거 시설, 취미생활 공간 등을 원하고 있고 노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실내의 방문 턱 제거와 의료시설, 황토방 등을 원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건물내부 평면의 전체 공간 배열은 근접성을 가져서 잘 알고 있는 예상되는 논리체계로 디자인되는 것이 좋다. 연속적이고 연결되는 내부 동선으로 원형으로 흐르는 동선이 좋다. 또한 거주자의 생활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형으로 계획하는 것이 거주자들의 독립성을 오래 유지하게 하여 스태프에 의존도가 감소하게 된다(Regnier, 1995). 건물 내 각 공간은 사적인 친밀감의 정도가 다양한 위계를 가진 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친밀한 공간은 침실, 욕실, 서재, 공동공간, 부엌의 순서이며 가장 공적인 공간은 현관과 포취, 출입구이다. 건물내 방들의 성격이 복잡하면 행동의 수준조절이 어려워져 사용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실내에 최대한의 채광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방들을 남쪽에 두는 것이 주택 내부를 밝게 만들게 된

다. 방의 사용 빈도가 높고 중요하게 사용되는 방이 밝으면 집이 밝아 보이므로 거실이나 식당등 사용 빈도가 높은 방은 밝은 향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Alexander, 1977).

주택의 실내공간은 주변 공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절되고 보호된 실내로써 온실, 베이윈도, 창가의 자리 등을 설치하고 실외 공간은 건물의 연장으로서 아름답고 보호된 외부 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이로서 외부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취약한 노인들에게 더욱 유용한 공간이 된다.

현관/로비: 현관은 위치를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멀리서도 쉽게 현관을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현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기, 입구 높이를 높이기, 캐노피 돌출, 외장 색채의 차이, 장식의 차이 등) 건물의 내부에서는 동선의 분기점으로 행동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사람들의 행위를 앉아서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이며 이 곳에서 행사를 여는 것 등, 재미를 느끼게 해 줄 수 있을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관은 전환 공간으로서 외부에서 완충공간을 두어 서서히 진입하게 하는 것이 더 집과 같은 느낌을 준다. 즉 포취의 형태가 길거나 벽이나 캐노피 등으로 보호된 갤러리 형 현관이 가장 집과 같다는 연구결과도 있다(Alexander, 1977).

로비의 응접영역은 거주자들에게 가장 흥미있는 영역으로 다른 사람들을 관찰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알코브 또는 라운지가 근처에 있어서 주요 동선에 방해 받지 않도록 하고 공중전화, 화장실, 음수대 등도 근처에 있어야 한다. 로비에서는 프라이버시보다는 개인화가 더 중요한 가치로서 개인화의 정도가 집과 같을 때 사용이 증가한다(Zavotka, 1997). 또한 가까이 있는 스태프 사무실에서 현관이 잘 보이고 문이 현관으로 열리도록 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복도/계단: 길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복도는 길 찾기를 어렵게 하고 시설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함으로 복도는 되도록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자인의 포인트는 시설 내의 복도를 자극이 많고 환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리와 같은 복도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집과 같은 분위기를 주기 위하여 길

이가 2.5m를 넘지 않도록 하고 건물의 중앙에 공유 공간을 두고 뜰을 에워싸는 형태로 건물의 외부나 내부에 편복도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양방 통행 복도는 단조롭고 어두우며 닫혀진 공간으로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부 창문을 설치하거나 고창을 설치하는 등으로 어두움을 해소 할 수 있다.

노인 시설주거의 복도는 단지 통행 뿐 아니라 사회 집단의 상호 교류가 필수적이므로 소그룹의 사회적 모임을 조장하기 위하여 주요 동선상의 복도 가까이에 소규모의 앉을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도의 중간 위치에 알코브를 설치하여 방과 같이 앉을 자리를 만들고 바닥은 카페트를 깔거나 목재 바닥으로 하고 가구, 책장 등을 두고 아름다운 창문에 충분한 채광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가장 좋은 복도는 벽 전체에 창문이 있는 것이다.

복도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조명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간접조명을 하며 조명의 질에 대한 세심한 선택이 요구된다. 식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도에 번호를 붙이기보다는 색채를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섬광을 막기 위하여 복도의 끝에 창문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계단은 그 방에 들어가지 않고도 일상적 행위를 구경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특히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알코브나, 계단을 올라가다가, 또는 출입문에 붙어있는 창을 통하여 사람들과 행위를 지켜 볼 수 있을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막힌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는 방향감을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계단이 하나의 공간과 부피를 가진 생기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 계단을 중요 위치에 두고 방의 한 벽이나 두 벽에 잇닿아 계단이 내려오면서 전체 계단을 방과 하나가 되도록 계획한다. 계단의 밑 부분에는 창문을 두고 개방형 난간을 설치하여 개방감을 높이고 밑 부분의 계단디딤판의 폭은 넓게 하여 방안으로 계단이 잘 포함되게 하며 방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곳을 앉을 자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외부의 계단이라면 정원과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거실/라운지: 공유되는 큰 공동공간들이 특정한

목적, 기능 용도에 대한 의식없이 지어지면 사용용도가 불분명함을 암시하게 되고 사용빈도도 낮게 된다. 작고 편안한 공유공간을 위해 용도에 따라 도서실, 휴게실, 작은 식당, 서재 등으로 공동공간을 분산 배치하고 동선로 상에 작은 알코브를 설치하여 소규모 집단의 비공식적인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 이때 알코브들은 시설 내부의 설치 가능한 곳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것이 거주자들의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고 큰 공간을 나누어 소규모 활동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는 각 공동공간의 구석에 니취 형태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1.8m×0.9m 또는 사방 1.8m 크기 이하로) 책상이나 탁자들을 놓고 1-2 인을 위한 적당한 공간을 만들면 소그룹으로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비공식적 사회교류와 서로 도와주는 행위를 증가시키고 우정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스태프들의 도움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시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는 또한 거주자들의 자존감을 증가시키고 건축적 표현을 조장시킨다.

거실은 가구가 편안히 놓일 수 있는 면적일 것과 창문을 조작하는데 편리할 것, TV는 낮 시간에 커튼으로 가리지 않고도 시청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공동공간 또는 라운지가 30명 이상이 모일 때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공간은 다시 미용실, 취미실, 작업실 등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천장을 높여서 공간감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간이 부엌과 가까워서 간단한 다과제공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과 매일 필요로 하지 않는 의자, 테이블을 수납하기 위한 수납공간이 필요한데 면적은 2m² 정도로서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 비치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거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이 필요한데 사적이고 햇빛이 비치는 개방된 테라스로 나갈 수 있고 바닥은 포장되어야 한다. 이 장소는 화장실에서도 가깝게 있을 것이며 소규모의 환담을 즐길 수 있도록 의자도 배치되어 있고 건물이나 외부로부터 가려지도록 간막이가 있어야 한다. 이 공간은 또한 공동공간에서 보았을 때 조망이 좋아야 한다.

라운지는 비공식적인 활동과 소규모 그룹의 일상적인 사회교류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곳으로 개인적인 TV시청,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계획되어야 한다. 방의 구석이나 알코브 등이 작은 라운지로 사용될 수 있으며 반드시 개방적이고 환영하는 분위기로 또한 외부 조망이 좋은 곳에 설치한다.

거실, 개인실 등에는 적어도 하나의 창문에는 창가에 앉을 자리를 마련하여 밖을 내다 볼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사람들이 창가를 좋아하므로 창문 밑에 붙박이 앉을 자리, 베이 윈도, 창턱이 낮은 큰 창문, 창가에 의자 배치 등으로 햇빛 쬐이기, 안정된 앉을 자리제공 등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각자의 방에서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탁실을 설치하여 실제적 기능 이외에 모임의 장소로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 설비는 다리미 대가 쉽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잠글 수 있는 수납공간, 세탁물을 개는 테이블 및 손빨래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적절한 배수구 및 가능하다면 외부에 건조공간도 설치한다.

개인방: 거주자의 방은 진정 가정과 같은 분위기가 요구된다. 가구와 그 배치, 조명, 냉난방 조절 등에 최대의 자유를 가질 것이 요구되며 동료의 선택, 활동선택, 사회 상호교류 또는 프라이버시 등 다른 개인적 조절에도 최대한의 자유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사람은 자기 홀로 있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도 친밀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방의 독립성을 크게 원하는 것(Hamigan, 1998; 신영숙, 2000)과 같은 맥락으로 개인실은 단일가구 또는 단독거주실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개인화, 자존감, 소속감 등은 영역의 조절과 소유권의 표현으로 달성됨으로 시설주거 거주자들의 최대 프라이버시를 위해 1인 1실이 최대 80%이상 되도록 하며 최대 2인 1실로 더 이상의 인원수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가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가족이 편히 방문하고 밤을 지낼수 있어서 집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하여 가족간의 상호교류를 권장해야 한다. 이때 자고가는 가족을 위해서 각 거주 단위에 알코브를 설치하여 공간을 제

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개인실의 면적은 완전한 부엌이나 간이부엌, 손님이 자고 갈 공간을 갖추는 정도의 면적 이어야한다.

거주자들이 거주하는 각 방은 각기 분산 배치되는 것보다 소규모로 군집을 이루도록 배치하는 것이 비공식적인 친교집단을 형성하고 상호간의 봉사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개인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공적 공간인 복도와 사적공간인 개인방의 전환공간으로서 개인화된 입구로 거주자의 개성이 나타나도록 한다. 벽면에서 약간 들어간 문, 그 옆에 최소한 10cm 깊이의 선반을 설치하여 장식을 하거나 식물을 전시할 수 있거나 문을 열 때 잠시 물건을 올려놓고 손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또는 개인방 앞에 알코브를 두어 소규모 집단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정원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이 있거나 복도에 유리 진열장을 두어 꽃, 사진, 식물 또는 그림이나 액자들을 걸어서 자신의 영역으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각 개인방에는 적어도 하나의 창문은 반드시 설치하고 창문은 맑은 유리로 외부를 잘 볼 수 있는 충분한 면적, 앉아서 밖을 볼 수 있도록 창문턱을 조정하여야 한다. 노인들의 경우 하루 중 자신의 방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데 밖을 볼 수 있도록 창문턱을 낮추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창문과 내부 모퉁이들은 가구 등으로 장식성을 최대화하고 자신의 생활에서 아끼는 것 그 자신의 역사를 말해주는 물건들을 가까이 둘 수 있도록 해 준다. 창문의 높이, 계단의 위치, 문의 손잡이, 전기 콘센트의 위치와 조명스위치 등 모든 세부 디자인 요소들은 보다 더 세심하게 잘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거실영역과 침실영역의 사이에 알코브, 프렌치 도어, 스크린, 커튼 등으로 분리되어 사회적 공간과 침실공간의 분리가 바람직하다.

또한 완전한 부엌과 욕실은 주택의 기능을 더 복돋워 준다. 프라이버시와 여유 공간이 있으면 개인화가 가능해 지고 가족간 상호 교류가 더 증진된다. 완전한 부엌은 독립감을 주고 간이부엌이더라도 실제적인 가치와 함께 상징적인 가치를 주므로 중요

하다. 미국의 경우 노인 시설주거에 관한 책들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부엌공간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실제 시설주거에서는 CCRC 이외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도 지적된다.

또한 개인방에는 반드시 수납공간과 전시 공간이 필요하다. 허리높이에 깊이 25-40cm 정도의 선반을 많이 설치하면 위 상면에 물건 올려 놓기, 하부에는 저장공간을 두어 수납공간도 늘리고 낮게 설치하면 앉을 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수납공간을 원하는 공간에 만들어서 자기소유 물품들의 보관 장소를 만들어 준다. <표 1>에서 설치 희망공간에 드레스룸이 우선적인 요구 사항인 것을 보아도 노후 시설주거에서도 침실과 욕실 사이 공간에 드레스룸을 설치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개인공간의 외부 영역은 전체 디자인에서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다. 대부분 노인들은 선택에 의해 또는 장애로 인해 대부분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지내게 되므로 패티오, 발코니 등 그들의 생활공간을 확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조용히 홀로 지낼 수 있는 공간, 산책로도 필요하다. 발코니는 1층 이상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외부 환경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안의 필요 정도에 따라 유리로 덮인 선롬, 가려진 포취, 또는 유리문을 통해 개인방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적인 발코니로 만들 수 있다. 건물의 내부나 발코니에 앉아 있을 때 외부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높이 1 m 내외의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식당: 중앙 식당은 주로 낮 동안의 주 활동 공간이므로 계단과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식당은 너무 크지 않은 공간으로 집과 같이 계획하는 것이 좋다. 식당이 단 하나이면 여분의 식탁과 의자를 위한 수납공간이 필요하다. 자리를 배치할 때도 한 두 사람이 앉는 자리, 소규모 인원이 앉는 자리, 많은 수의 인원이 앉는 자리 등으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테이블을 제공할 것이며 각기 다른 요구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큰 식당의 경우는 알코브나 베이틀 두어 구획하거나 큰 식당에 연결된 사적 식당에서 친밀한 식사 경험을 갖

게 하는 것이 좋다. 조명이 분위기를 크게 좌우하므로 부드러운 조명이 낮게 테이블 위에 드리워져서 천천히 식사하면서 친교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마감재/가구: 실내에는 거대한 장식보다 주택과 같은 친밀한 스케일로 처리한다. 주택과 같은 스케일은 문, 창문, 장식, 가구제작 등에서도 나타낼 수 있다. 노인 시설주거의 건축적인 표현은 상세 표현, 마감, 설치기구, 벽과 바닥재, 의자에 주택과 같이 인식되는 공간적인 의미를 주어야 한다.

의상이나 악세사리도 거주자의 흥미와 취향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 건물의 양식이나 실내의 가구나 의장 등이 집과 같은 것은 미적인 면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로 거주자, 스태프, 가족들의 태도, 행태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 사이의 좋은 관계, 또는 과거의 추억을 회상케 하는 물품, 수집품들은 그 모양, 질감, 외양 등이 집의 친밀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가구선택, 마감재, 바닥재, 벽마감재, 수납공간 등에서 재료와 마감재, 처리방법 등 집과 같이 정비되고 에워싸이는 디자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도적 시설에서 모든 내외부에 사용하는 재료나 마감, 상세 등을 선택하는 기준이 내구력, 저가, 최저유지비 등에 두고 있다면 집과 같은 특성과는 거리가 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만 선택되면 제도적 시설과 같이 보이며 병원과 같은 시설은 가족간의 교류를 저해하고 거주자들에게 암암리에 무기력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집과 같은 특성을 위해서는 가구, 장식, 마감등이 섬세해야 한다. 형광등 대신 백열전구를 사용하고 간접조명을 하며 조명등의 갓 등이 브라켓, 펜던트, 발란스 및 탁상등 등 다양할 것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세련된 스케일로 작은 규모이면서 창문, 유리면, 개구부, 마감재료, 상세 등이 섬세하게 디자인되는 것이 집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4) 주위 환경

동네의 환경도 자연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을 원하며, 병원, 편의시설, 공원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문화생활이 가능한

곳에 대한 요구도 높아서 앞으로 노인들은 현재의 노인들보다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삶을 즐길 수 있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노인 시설은 노인이 원하는 곳에 세워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서울 근교가 가장 선호되고 있어서 교통편리로 문화 생활을 하면서 자연의 풍광을 즐기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80%의 노인들이 노후 주택이 이전 주택에서 10k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을 원하는데 이는 그 지역의 지역사회, 친구, 이웃 관계, 자원 등에 익숙하며, 이러한 생활상의 익숙함이 노인들에게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지선정에는 소요면적, 위치, 교통수단, 쇼핑, 사회적 서비스, 이웃, 주차장, 햇빛 방향, 지형, 전기, 상수도 시설, 구역 지구제, 비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의 위치는 지역사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와의 상호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설, 상업적, 사회적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보행 거리 내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지역 사회의 프로그램이나 노인 시설주거 내의 프로그램들을 상호 이용할 수 있거나 시설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노인들의 정신 건강에도 좋다.

주차장도 필요한 공간을 넓게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하기보다 몇 개의 작은 공간으로 분산 배치하고 또한 일부는 수목이나 담장으로 가려지는 것이 집과 같은 특성을 줄 수 있다.

공공장소를 통하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욕구와 사회 서비스간에 선택 능력을 길러줌으로서 거주자들의 독립성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내 집과 같이 편안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친밀한 분위기의 노인 시설주거 디자인을 위해서 중년, 중산층의 주부들이 주택의 물리적 특성에서 어떠한 특성들을 선호하는지를 밝혀내어 이

를 실제 노후 시설주거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의 결론은 주부들의 주택의 물리적 형태에 대한 인식이 주택 유형, 주택 외관, 평면 계획, 주위 환경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그러한 환경의 요구도가 환경의 질적 단계 중 최고 단계인 쾌적성의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택의 물리적 특성으로 4가지 구성 요인들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 유형은 여전히 생활편리를 위해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노후 주택에서도 동일한 추세로 나타나서 아파트형 유료 노인 시설주거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단독주택으로 전원주택도 큰 비중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서 다양한 노후 주택의 유형 개발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둘째, 주택의 외관은 획일적이 아닌 개성적인 형태를 원하고 있으며 정원이나 마당에 대한 활용요구도도 높다. 나무의 특성에 따른 식재를 통해 아름다운 조경과 정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 계획이 요구된다.

셋째, 평면계획에서는 개방감이 있는 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통유리 사용, 넓은 거실과 베란다 등의 계획이 필요하고 주택 내의 의장 및 시설은 밝고 열은색의 안정감 있는 색채사용과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마감과 개성적인 실내표현이 요청된다. 편리한 화장실과 다양한 실내 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노인 시설주거에서 각 공간의 다양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서 운동공간 및 시설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넷째, 주위 환경은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며 동네 환경도 공기, 햇빛, 편의시설, 문화시설을 고루 갖춘 쾌적한 환경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더욱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인들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사회 변화에 맞는 다양한 노인 시설주거의 형태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유료 노인 시설주거를 원하고 있는 비

중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주택형태에서 공간과 내부 의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활양식의 변화와 그에 부응하는 주거욕구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 참고문헌

- 신영숙(1999).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2), 105-120.
- _____(2000). 내 집과 같은 노인 시설주거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I). 미국의 노인 시설주거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1), 165-179.
- _____(2001). 선호하는 유료 노인 시설주거 디자인을 위한 중산층의 집에 대한 개념. 내 집과 같은 노인 시설주거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II). *대한가정학회지*, 39(12), 141-158.
- Alexander, C. et. al (1977). *A pattern language*, 1st.ed.,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oschetti, A. Margaret (1990). Reflections on home : Implications for housing design for elderly persons. *Housing and Society*, 17(3), 15-26.
- _____(1995). Attachment to personal possessions: An interpretive study of the older person's experience. *J. of Interior Design*, 21(1), 1-12.
- Brennan, P. et.al. (1988). Preferences of older adults and experts for physical and architectural features of group living facilities. *The Gerontology*, 28(1), 84-90.
- Brummett, William (1997). *The essence of home. Design solutions for assisted living housing*. N.Y., Van Nostrand Reinhold.
- Carp, F (1976). User evaluation of housing for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16(2), 102-111.
- Goodman, J. Raymond & Smith, G. Douglas (1992). *Retirement facilities. Planning, design, and marketing*. N.Y., Whitney Library of Design. Watson-Guption Pub.
- Harrigan, E. Jon, et al (1998). *Senior residences. Designing retirement communities for the future*. N.Y., John Wiley & Sons.
- Hogland, J. David (1985). *Housing for the elderly: Privacy and independence in environments for the aging*. N.Y., Van Nostrand Reinhold Co.
- Howell, Sandra et, al. (1976). *Shared spaces in housing for the elderly. Design evaluation project*. Bost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Lawton, M. Powell et.al (1982). *Aging and the environment., Theoretical approaches*. N.Y., Springer Pub.Co.
- Moos, H. Rudolph & Lemke, Sonne (1996). *Evaluating residential facilities*. California, Sage Pub. Inc.
- Pastalan, A. Leon (1990). *Housing design for the elderly, strategies for senior housing. Underwriting evaluating senior housing developments*. Chicago, Illinois,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of America, Probus Pub. Co.
- Regnier, Victor (1994). *Assisted living housing for the elderly. Design innova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Y. Nostrand & Reinhold.
- Regnier, Victor et. al (1995). *Assisted living for the aged and frail. Innovations in design, management and financing*.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Smith, S. G. (1994). The essential qualities of a home. *J.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4, 31-46
- Wells N. M. & Evans G. W. (1996). Home injuries of people over age 65: Risk perception of the elderly and of those who design for them. *J.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6, 247-257.
- Zavotka, l. Susan, et, al. (1997). The design of shared social spaces in assisted living residences for older adults. *J. of Interior Design*, 23(2), 2-16.